



제1회 아줌마 축전

품질에 놀라고 가격에 반하고 흥에 취했다



200여 특산품 부스 야간개장

전남 22개 지자체의 농수축 특산품과 함께한 '제1회 아줌마 축전'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광주시 북구 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열린 가운데 판매부스가 모인 행사장의 애경이 이채롭다.



저 푸른 초원위에~♪

아줌마 축전은 행사 내내 축하공연을 여는 등 다양한 불거리를 마련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수 남진·해바리기·현숙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

/사진=나명주기자·최현배기자 mjna@kwangju.co.kr



가격 참 착하네...

'아줌마 축전'을 찾은 주부들이 완도군의 특산품 판매부스에서 돌김과 전복을 구경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전남 22개 지자체의 각 특산품들이 시중과 비교해 최고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돼 추석을 앞둔 주부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빠~”

행사 첫날 저녁 가수 남진이 무대를 수놓자 관객석의 한 '아줌마'가 손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1등 양보 못해!

개막 첫날 오후에 열린 '아줌마 팔씨름 대회'에서 선수로 참가한 주부들이 '첫먹던 힘'을 다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1등 상금 30만원을 두고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줌마'가 담판을 겨뤘다.

화제

건강한 먹거리 사고 장애우 돋고

수익금 재활위해 운영 '씨튼 베이커리'

이번 축전에는 수십여개의 부스들 가운데에서도 눈길을 끄는 특별한 부스가 있었다.

사회적 기업 '씨튼(seton) 베이커리'가 만든 각종 빵과 쿠키, 스낵을 판매하는 부스다. 현재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1층에 매장을 둔 씨튼 베이커리는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사용 중이다. 이번 아줌마 축전에서 씨튼 베이커리는 빵을 만드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나와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흥보하면서 구매객들의 밭길을 사로잡았다. 씨튼 베이커리에서는 5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제빵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씨튼 베이커리는 100% 순 국내산 밀로 만든 빵으로 건강과 영양을 강조하면서, 판매 수익을 옮길과 동시에 홍보 효과를 특별히 봤다.

씨튼 베이커리에서 빵을 구매한 주부 이미정(44)씨는 "한눈에 봐도 신뢰가 가는 빵집인 것 같아 구매하게 됐다"며 "종종 유스퀘어에 들려 빵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씨튼 베이커리 관계자는 "빵은 톡탁하지만 자연적인 맛이 매력"이라며 "수익금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자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준결승에서 부전승 대상을 차지하기 위해 댄스대결을 펼치자 '날렵한 웨이브 댄스'로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던 김씨는 화창시절 육상과 배구를 했던 덕분에 쉽게 상금을 낚아쳤다.

김씨는 "한번도 팔씨름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중학생 아들이 '엄마는 우승할 수 있다'고 격려해 출전했다"며 "아줌마들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이번 행사가 정말로 민족스럽다"고 말했다.

아쉽게 2등을 차지한 노재님(69·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는 "힘으로는 '젊은 엄마'를 놓당해내겠다"며 준우승 소감을 밝혔다.

/임동기자 exian@kwangju.co.kr

팔 힘은 내가 광주 최고 아줌마

'팔씨름 대회' 운남동 김미영씨 우승

축전 첫날 하이라이트는 남성 뜻지 않다는 팔힘(?)을 겨루는 '아줌마 팔씨름 대회'였다.

다소 생소한 여성 팔씨름 대회에 참가한 아줌마는 모두 10명. 30대부터 60대까지, 누가 봐도 덩치가 '넉넉해' 보이는 아줌마로부터 이제 갓 '아줌마'가 된 새댁까지 1등 상금 30만원을 두고 담판을 겨뤘다.

관중석과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회 참가 아줌마들은 있는 힘껏 힘을 주면서 이슬아슬한 승부를 여러 차례 펼쳤다.

최종 우승자는 광산구 운남동에서 온 김미영(37)씨. 출전자 중 가장 우람한 (?) 체격을 자랑했던 김씨는 손쉽게 경쟁자들을 누르며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모저모

돌산 갓·무안 고구마 '인기짱'

○…축전 첫날부터 지역특산물이 전시된 시군판매대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여수·돌산 갓김치와 '갓 구운 쿠키', 무안 '황토고구마', 함평 '잡곡' 등이 불티나게 팔려 준비했던 하루 물량이 순식간에 바닥나며 최고의 인기특산물.

특히 여수군 판매대에서는 첫날 준비한 '돌산 갓김치' 100여 박스가 다 팔리자 긴급히 현지에 물품조달 요청을 내렸으며, 무안 '황토고구마'도 하루에 무려 200박스가 팔리는 '대박'을 이뤘다. 함평판매대는 월야농협의 정광우 조합장이 직접 세일에 나서 '잡곡'과 '불고기' 판매량을 높이는 탁월한 실력발휘(?)。

둘째 날부터는 완도 전복, 해남 호박고구마, 국상 사과, 나주 배 등 태시군의 판매처에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특산품 고장의 명예를 회복하며 각 시군의 눈에 보이지 않는 판매경쟁도 더욱 치열.

입·출구쪽 부스는 '명당자리'

○…제1회 아줌마 축전에서는 무등경기장 축구장을 둘러 설치된 농·수·축산물 판매 부스를 중 유독 고객들이 자주 찾는 '명당 부스'가 존재.

수십여개의 판매 부스를 가운데에서도 특히 행사장 입·출구 쪽에 설치된 판매 부스에는 자연스럽게 행사장을 찾은 고객들이 몰리

면서 다른 상인들의 부러움을 산 것.

입·출구에 설치된 부스를 부러워한 상인들은 "내년에는 꼭 입구나 출구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야겠다"며 부러운 표정.

무대 밖 고사리손 응원 열전

○…축전 첫날 부대행사로 마련된 주부들의 노래·댄스·시 낭송 대회에서 어린 자녀와 손자들의 정성어린 응원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

이번 행사는 주인공인 주부들을 응원하기 위해 자녀와 손자들은 손수 피켓을 만들어오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응원 열기가 고조.

자녀의 응원에 힘입은 주부들은 열심히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최선을 다해 대회에 참석하고, 관람객들도 대회민심이나 재미있는 응원을 즐겁게 구경.

아줌마는 '댄스 삼매경'

○…개막일 오후 5시께 펼쳐진 '아줌마 댄스공연'은 '아줌마 축전'이라는 제목처럼 개막 첫날 '아줌마들의 한판 잔치'로 열기 후끈.

더운 날씨탓에 많은 수가 참여하진 않았지만 무대에 오르는 것조차 부끄러워 하던 주부들이 강렬한 댄스음악이 계속 울리자 점차 분위기를 끌어 올렸고, 무대 위가 흥겨워지자 관중석의 아줌마들까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즐기운 댄스타임'에 합류.

광주시 북구 임동에서 온 최모(여·46)씨는 "오랜만에 몸을 풀(?) 것 같다"며 흥겨운 표정 지으며 소감.

안내·진행 특금도우미 지원봉사자

○…이번 축전에는 행사장 안내와 진행을 도운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회원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큰 불편없이 대회가 마무리되는데 큰 역할.

지난 2001년 춤·음악·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설립한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는 시낭송·시화전·지하철역 공연 등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무료급식과 복지공연 등 봉사활동도 꾸준히 전개.

최미옥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꾸준한 봉사활동과 예술활동을 통해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강운태시장, 500여 부스찾아 격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2일 개막식에 참석한 후 50여개의 부스를 돌며 일일이 격려.

강 시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2개 전남시·군이 마련한 판매장 곳곳을 방문 사진촬영과 "추석을 앞두고 광주에서 질 좋은 농특산물을 판매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인사.

개막식에는 강 시장 외에도 정순남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광주 5개 자치구의 구청장·부구청장과 김재균·조영택·강기정 국회의원,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찾아 뜻깊은 행사임을 입증.

/서승원 선임기자 swseo@kwangju.co.kr
/임동기자 exian@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